



**[산업]**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LG헬로의 1등 DNA  
미디어혁신 주인공”  
05



Life

**[라이프]**  
이른 설에  
선물세트 매출 부진  
백화점, 막판 스피트  
L1



# 공연·스파·관광 지루할 틈 없는 크루즈 낭만 여행

크리스탈크루즈 기항지인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

/크리스탈크루즈

## 메트로 트래블

바야흐로 해외여행의 시대다. ‘대교여행’부터 은퇴 후 여유를 만끽하는 ‘황혼여행’까지, 과거에는 해외여행을 가기 위하여 대단히 큰 결심을 했던 시기였지만, 현재는 인터넷의 발달과 여행을 주제로 한 공중과 방송, 저가항공사의 등장으로 인한 비용부담 감소 등 여러 요인으로 해외여행은 이제 일상의 영역으로 내려왔다. 특히 크루즈 여행은 안 가본 여행객은 있으나, 한번만 가본 여행객은 없다고 할 정도로 전체적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것으로 알려져있다.

### ◆지루한 순간이 없는 크루즈 여행 장점

여행의 모든 순간 중 가장 지루한 시간은 언제일까. 재미없는 관광지를 둘러보고 있을 때, 맛있는 식사를 하고 있을 때라고 답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여행객들은 항공 이동시간을 가장 지루한 순간으로 꼽는다.

비좁은 항공기 내에서 여행객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매우 제한적이다. 비좁은 좌석에 앉아 적게는 2시간에서 많게는 10시간 이상을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피로가 동반될 수밖에 없다.

크루즈 여행은 이동시간의 지루함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거대한 크루즈 내에 각종 편의시설이 있고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이다. 여행객들은 여행지로 이동하는 동안 자유롭게 수영·스파를 즐길 수도 있고, 거대한 홀에서 열리는 공연을 관람하거나 헬스장에서 가볍게 운동을 즐기고 관광을 시작할 수도 있다. 수면 시에도 객실 형태로 개별적인 방이 제공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침해 당할 위험이 적고 피로를 줄일 수 있다.

### ◆여행사, 크루즈 부문 사업 확대

세계 크루즈 여행시장은 최근 10년 동안 100% 이상 성장하는 등 꾸준하게 커가고 있다. 그중에서도 2013년 8%에 불과했던 아시아·태평양 노선은 2018년 15.1%로 급성장하며 카리브해 노선에는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아시아 시장이 급성장하며 수요가 많아지자 기존 4~5일의 단기 일정뿐만 아니라 7~8일 이상의 중기 크루즈 여행 또한 증가 추세다.

여행사 중 롯데제이티비는 이러한 트렌드 변화



프린세스 크루즈의 대표적인 기항지 알래스카.



드림크루즈 메인풀.

## 지루한 비행·피로 없는 크루즈 아시아·태평양 노선 급성장해 세계 유명 크루즈, 韓 시장 공략

### 경비 일체 포함·최신식 선박 등 수준 높은 크루즈 여행 제공

에 발맞춰 가용 노선을 확대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에 힘쓰고 있다. '2021년 크루즈 인·아웃바운드 No.1 여행사'를 전략 목표로 설정하고 양방향으로 크루즈 관련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올해도 4월 21일에 부산에서 출발하는 '코스타 아틀란티카호 7일' 전세 크루즈 상품 모객을 진행중이고 2020년 하반기에도 전세선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2021년에는 다양한 상품군을 선보이고 전세 크루즈를 확대하여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14일, 조시 웬 로얄캐리비안크루즈 아시아 세일즈 총괄 이사가 한국을 방문, 이재명 로얄캐리비안 한국사무소 대표 및 2019년 세일즈 우수 여행사 관계자들에게 노고를 치하 하며, 2021년 23만톤 규모의 최대크루즈 도입을 밝혔다.

### ◆다양한 크루즈 선사

프린세스크루즈는 최근 '크루즈 비평가' 주최한 제12회 연례 크루즈 비평가 시상식에서 '최고 기항지 투어'상을 수상 한 바있다.

프린세스 크루즈는 18척의 현대적인 크루즈 선박을 보유한 국제적인 크루즈 회사이자 투어 회사다. 매년 약 200만명의 승객들에게 혁신적 디자인과 다양한 요리, 엔터테인먼트 및 각종 안락한 시설을 최상의 서비스와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380여개 여행지를 여행하는 3일~111일짜리 크루즈 일정 170 여 개를 운영중이다.

25년간 아시아 크루즈 시장을 이끌어온 '켄팅 홍콩' 드림 크루즈는 총 3척의 선박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 홍콩과 싱가포르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를 모항으로 하는 최신식 선박들로 2박~21박의 다양한 크루즈 일정을 제공하고 있다.

홍콩 출발 월드 드림호 추천 일정으로는 1월24일 출발 2박 크루즈(1인 37만원~), 발렌타인 데이인 2월 14일 출발하는 2박 크루즈(1인 24만원~)가 있다. 눈여겨 봐야 할 일정으로 5월1일 출발하는 2박 크루즈는 스위트 예약시 자녀 2인 무료 크루즈 프로모션이 제공되며 1인 27만원부터 판매 시작한다.

6성급 크루즈 선사 크리스탈 크루즈는 선상 팀, 버틀러 서비스(펜트하우스 이상 예약 시 제공), 메인 레스토랑 및 스페셜 레스토랑, 바&라운지, 미니바, 무제한 WIFI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올 인클루시브(All-Inclusive)를 지향하는 크루즈 선사로 한 차원 높은 수준의 크루즈 여행을 제공한다.

호주에 본사를 둔 씨닉 럭셔리 크루즈 앤 투어는 권위 있는 글로벌 크루즈 어워드 상 수상 경력과 함께 33년 역사를 자랑하며 총 15척의 선박으로 유럽 리버, 동남아시아, 이집트 등 오션 크루즈를 운항 중에 있다.

오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남극반도, 유럽, 남미, 아이슬란드 등 전 세계를 아우르는 9박~29박의 일정을 운항중인 씨닉 이클립스호는 오직 228인의 승객 수용이 가능하며 버틀러 서비스, 공항 영접, 무료 세탁 서비스, 무료 기항지 관광 제공 등의 올인클루시브 크루즈를 제공할 뿐 아니라 조디악이라 불리는 잠수정과 헬리콥터를 탑재하고 있어 더욱 생동감 넘치는 신개념의 크루즈 여행을 가능하게 한다.

/이민희 기자 lmh@metroseoul.co.kr

## 여행 단신

### 캐세이퍼시픽항공-싱가포르 관광청 싱가포르 항공권 프로모션

캐세이퍼시픽항공이 싱가포르 관광청과 함께 특가 항공권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캐세이퍼시픽은 오는 2월 15일까지 싱가포르로 가는 프리미엄 일반석과 비즈니스석 왕복 항공권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프리미엄 일반석에는 전용 체크인카운터, 넓은 좌석 공간 등 편안한 여행을 위한 전용 서비스가 제공된다.

인천, 부산, 제주에서 홍콩을 경유해 싱가포르로 가는 비즈니스석 항공권은 95만 2900원부터, 프리미엄 일반석 항공권은 77만 6100원부터 구매할 수 있다. 출발 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31일이다. /이민희 기자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경자년 맞아 관광산업포럼 개최

한국관광협회중앙회(회장 윤영호)가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 관광분야 민·관이 함께 모여 관광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소통하고 교류하는 장을 마련했다.

관협중앙회는 14일 노보텔 엠베서더 서울동대문에서 '2020 신년 관광산업포럼'을 개최하고 올해 외래관광객 2000만 명 달성을 위한 다짐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된 포럼에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원희 연구위원의 '관광 트렌드 분석 및 전망'과 문화체육관광부 최병구 관광정책국장이 지난해 12월 12일 국무총리주재 '제4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여행자 중심 지역관광 발전 전략' 발표가 이어졌다.

포럼 다음 진행된 '2020 신년 관광산업포럼' 교류행사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양현미 문화비서관, 한국관광공사 안영배 사장 등 정부와 관광분야 기관 및 단체장, 업계 대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래관광객 2000만 명 달성을 위한 다짐'행사가 진행됐다. /이민희 기자



외래관광객 2000만명 달성 신년 다짐 세레모니.

### 주한외국관광청협회

### 신임회장에 코린 풀키에 선정

1992년 발족된 외국 관광청들의 모임인 주한외국관광청 협회(ANTOR)가 지난해 11월 총회를 개최, 신임 회장에 코린 풀키에 프랑스 관광청 소장을 선출했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풀키에 회장과 함께 안토르를 이끌어 갈 임원단도 함께 선출했다. 신임 임원단의 임기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년이다. /이민희 기자